



최영순 씨가 낸 명상만화 《마음밭에 무얼 심지?》.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작은 휴식 같은 책이다. ▶

장남이자 가장이자 우썌만능인 자의인

만화가의 소박한 깨달음

★ 인터뷰 최영순



“나무는 ‘해거리’라는 것을 합니다. 한 해 풍성하게 결실을 거두고 나면 그다음해에는 지친 줄기와 뿌리를 쉬게 하면서 성장을 멈추는 것이지요. 그래야 다음해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고 수십 년, 수백 년 지속적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답은 자연 속에 있었다. 나무를 배우면 우리네 삶이 한결 편안해지지 않겠느냐고 조심스레 되묻는 이 사람. ‘아주 특별한 명상만화’라는 부제가 붙은 《마음밭에 무얼 심지?》의 저자 최영순(40) 씨다.

《마음밭에 무얼 심지?》는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작은 휴식 같은 책이다. ‘천천히 그리고 느리게’ 읽을 수 있는 책이지만, 책장을 넘기다 보면 어느 순간 눈을 감고 사색에 잠기기도 하

고, 바로 이거다 하는 깨우침에 무릎을 치기도 한다. 설 틈 없이 바쁜 일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에 조금씩 여유가 깃들기 시작한다. 어려운 말보다는 일상의 쉬운 언어로, 긴 설명보다는 짧고 함축적인 메시지로, 촌철살인의 깨달음과 깊은 감동을 동시에 전해준다. 이쯤 되면, 그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 궁금증이 일기도 한다. 돌아온 대답은 간결하다. “장남이자 가장이며, 평범하고 욕심 많은 사람”이라는 것. 다만 욕심을 줄이며 살아가고자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보며 던지는 질문과, ‘이렇게 살면 어떨겠느냐’는 권유를 글과 그림으로써 표현했다는 설명이다.

“태학을 졸업하고 잠시 신문사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때 취재차 방문

한 불교 사회복지시설 '자비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곳에서 상담사로 일하게 되었지요. 만화를 처음 그리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입니다. 자비원에서 매월 소식지를 만들었는데, 편집을 마치고 나면 항상 2페이지가 남았어요. 외부필자에게 원고를 맡기기도 어려운 형편이라 만화를 그려 넣으면 어떨까 싶어 시작한 일이지요.”

뜻밖에 반응이 좋았고 만화를 그려달라는 청탁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만화를 그리는 경험이라고는 초등학교 시절, 공책 귀퉁이에 연필을 꺾꺾 눌러가며 그리는 게 전부. 한때 장래희망란에 '만화가'라고 적을 만큼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진짜 만화가가 되리라고는 본인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다.

시간 날 때마다 그는 집 밖을 나선다. 발길 닿는 대로, 풍경이 부르는 대로 한가로이 걷기 위해서다. 아파트 주변, 마을 뒷산, 비좁은 골목길과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시가지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길은 그의 산책로가 된다. 아무런 상념 없이 걷다 보면 어느덧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자연과 사물을 관찰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라고.

“인간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 유독 탐욕이 많고 오만한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나름대로 아킬레스건이 없어서가 아닐까 라는 답변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사자나 호랑이 같은 야생 동물들은 체내의 열을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잇감을 쫓아 달리고 나면 반드시 쉬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과학과 문명의 힘으로 생애학적인 아킬레스건을 극복했고, 더 오랫동안 쉬지 않고 일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더 많은 탐욕과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연유로, 저는 인간이 좀더 약해지면 좋겠습니다. 게으름뱅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휴식의 방법은 일상적이면서도 단출하다. 우선 그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말한다. 퇴근길 버스정류장 벤치에 혼자 앉아있기, 점심시간에 회사주변을 천천히 걸어보기, 자기만의 작은 꽃밭을 가꾸보기 등 혼자만의 시간과 공간을 가져보라는 것이다.

“양생법養生法을 살펴보면 모두 적게 하라, 줄이려는 내용들입니다. 예컨대 적게 먹어라, 화를 적게 내라, 말을 적게 하라는 것들이지요. 많이 해도 좋은 것은 단 하나. 좋은 음악을 많이 들으라는 것뿐입니다.”

그는 '좀더 천천히, 좀더 느린 삶'을 추구한다. 육아문제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매일 아침, 그는 다섯 살 난 아들 현오의 유치원 길에 동행한다. 집에서 유치원까지는 어른 걸음으로 5분도 채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이지만, 부자(父子)가 함께하면 대개 20~30분 이상씩 걸리곤 한다. 길거리에서 마주친 들꽃과 곤충, 지나가는 자동차와 산등성이 너머로 보이는 푸른 하늘... 이런 것들에 대해 일일이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훌쩍 시간이 지나가 버리기 일쑤. 명문학원에 등록시키는 대신 함께 그림책을 읽고 도시락을 싸서 뒷산으로, 앞바다로 소풍을 가는 것이 그가 고수하는 나름의 교육방식이다. 거기에는 아이에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싶은 그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다.

“마음을 비우면 행복은 의외로 가까이 있음을 알게 되지요. 사람의 끝없는 탐욕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오디오'가 아닐까 싶어요. 한번 오디오 기기에 빠져들면, 아무리 값비싼 오디오를 손에 쥘다 한들 만족하지 못하게 되지요.”

워낙 음악 듣는 것을 좋아하는지라 몇 년 전 버리고 별러 장만한 오디오가 지금은 공간만 차지하는 장식품이 되어버렸다는 고백 끝에, 지금까지 들어본 가장 아름다운 음악은 친구의 사무실에 놀러갔다 우연히 듣게 된, 낡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온 드보르작의 첼로협주곡이었다며 웃음을 짓는다.

“책의 독자로 30세 전후 직장인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정신 없이 바쁘고, 큰 꿈을 안고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절망하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며, 인생이 남루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10억 만들기' 식의 열풍은 한낱 신기루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정작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잊은 채 그렇게 쫓아다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현재를 생각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화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깨달음과 즐거움을 선사한 그는 내년까지 총 5권의 책을 펴낼 계획이다. 선문답에 관한 책 2권과 인디언에 관한 책, 경허선사의 일대기를 만화로 담아낸 책, 그리고 누구라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불교와 히말라야와 티벳, 환경, 인디언의 생활을 다룬 책들을 찾아 읽는 등 만화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거기에서도 어김없이 '깨달음으로써 비워지고 비움으로써 채워지는', 자연에서 배운 삶의 모습을 담아낼 예정이다. **☞**

취재 류은영(객원기자)·사진 박신우 기자